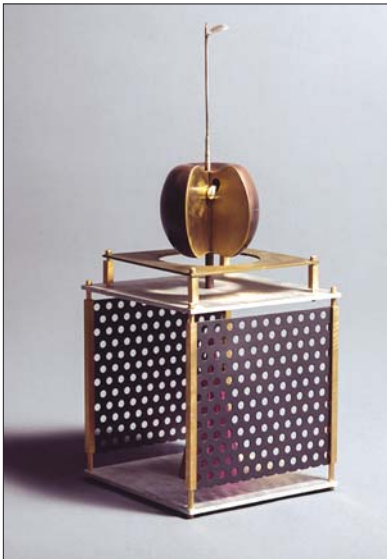




〈고성종 작가 - 자연으로부터〉



〈김행령 작가 - 천년의 기대림〉



〈조수진 작가 - 망루〉

전주영화제작소, 개관 10주년 '십시일관' 영화제 내일 개최

전주영화제작소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십시일관(十視一館) 영화제'를 내일부터 19일까지 연다고 13일 밝혔다.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10명의 셀렉터들의 시선으로 선정한 작품들이 하나의 영화관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영화제 기간 총 3개의 색선, 11편의 작품이 전주영화제작소 4층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된다.

또 영화 감독과 함께하는 게스트 토크, 평론가와 함께하는 전문가 해설, 영화를 선정한 관객 셀렉터 토크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게스트 토크는 선정된 독립영화의 감독과 영화인 셀렉터로 참여한 감독이 참여한다.

오는 17일에는 '토니 에드먼' 상영이 끝난 후 '탈타 보이즈', '본튼이의 모험', '다영씨'를 연출하며 매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영화인 셀렉터 고봉수 감독과 함께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날인 18에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의 이광국 감독이, 19일에는 '김군'의 강상우 감독, '소공녀'의 전고운 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작품 상영 및 토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영화인 셀렉터가 추천한 두 편의 외국 영화는 전문가 해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영화사 진진 정태원 차장의 추천작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16일 한국영상학회지료학회 전북지부장을 맡은 이승수 평론가가 심층 해설을, 류아벨 배우의 추천작 '어바웃 타임'은 18일 김소희 영화평론가가 함께한다.

관객 셀렉터 토크는 영화를 선정한 관객 셀렉터 3명과 함께 각자의 선정작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

한국공예의 세계화 위해 '앞장'

한국공예문화협회, 내일 현대공예 원로·정예작가 10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내일부터 20일까지 '(사)한국공예문화협회전'이 열린다.

(사)한국공예문화협회에서 '2019 한국 현대공예 원로·정예작가 10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공예문화협회의 일곱번째 기획전으로 한국현대 공예를 개척한 원로 작가들과 그 뒤를 이어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정예작가 10인의 주옥같은 대표작품들을 초대 전시한 후 한 작품씩 기증받아 후일 설립될 한국 공예 전문전시관에 영구 소장하여 한국공예 발전의 역사적 사료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도자공예 고성종, 금속공예 김행령, 목질공예 안덕춘, 도자공예 안시성, 섬유공예 오순희, 도자공예 이부웅, 금속공예 임옥수, 섬유공예 정옥란, 목질공예 정용주, 금속공예 조수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동안 (사)한국공예문화협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기획전시와 특별전을 개최·운영해오면서 대한민국 공예문화발전과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견인하기 위해 앞장섰으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신진 공예작가들을 배출했다. 한국현대공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 창의적인 공예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문화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도자공예 고성종 작가는 홍익대학교 및 동산미술 대학원을 졸업했다. 1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릉대학교 명예교수, 예술체육대학 학장, 환경조형연구소장을 역임했다.

금속공예 김행령 작가는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캘러리빙, 아임러브메탈 대표작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원광보건대학교 주얼리디자인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목질공예 안덕춘 작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8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기획초대전, 단체전에서 활동을 했으며 국전 제27회 입선, 제29회 특선 수상 경력이 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명예교수이다.

도자공예 안시성 작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53호 부거리 응기장이다. 현재는 전라북도 전승공예연구원,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공예문화협회, (사)한국공예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섬유공예 오순희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생활미술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1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 활동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박물관자문위원과 관장과 덕성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도자공예 이부웅 작가는 5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도예과 명예교수,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장박물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금속공예 임옥수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 및 동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6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대한민국 공예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사)한국조형디자인학회·협회 명예이사장이다.

섬유공예 정옥란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



〈오순희 작가 - 어머니 생각〉

학 응용미술과 및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5회의 개인전과 국내외 단체·기획초대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및 공예분과 위원장,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목질공예 정용주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산업미술대학원을 졸업했다. 9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제2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디자인 미술대학 명예교수이다.

금속공예 조수진 작가는 목포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다. 5회의 개인전 및 다수의 단체전과 기획전에 참여했다.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귀금속공예)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공예전공 강사를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박애리 씨가 2번째 도전 끝에 판소리 명창 반열에 올랐다.

대한민국 판소리 명창 반열에 '우뚱'

제46회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통령상에 박애리 씨 수상

남원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에서 지난 12일 열린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박애리 씨가 2번째 도전 끝에 판소리 명창 반열에 올랐다.

박 씨는 춘향이가 옥방에서 신세를 정탄하는 대목인 '춘향이 중 옥방이 험탄 말'을 불으며, 박 씨는 지난해 춘향국악대전에서도 출전해 올해와 똑같은 대목으로 2등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박 씨는 중앙대학교 국악대학 강사와 국립창극단 단원 등 왕성한 국악활동을 해왔으며, 박계향 심사위원장은 "박씨는 소리로 좋고 무대 매너와 감정을 끌고 갔다"고 평가했다.

박 씨는 수상 소감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 열심히 소리에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명창 박애리에 걸맞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춘향가 중 '쑥대머리'를 특히 좋아 한다는 박 명창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도해 주신 스승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히 외조를 다해 준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남 목포가 고향인 박 명창은 재능을 알린 어머니의 권유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소리에 입문해 안애란, 성우향, 안숙선 명창으로 부터 지도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